

2-21. Comparative Study on *Galerucella griseascens* (Joannis) Feeding on Three Host Plants

장석원, 남상호, 권오석¹

대전대학교 생물학과, ¹농업과학기술원 곤충자원과

딸기잎벌레(*Galerucella griseascens*)는 1년 중 4월말에서 11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종으로 딸기잎을 가해하는 해충이었다. 그러나 농약으로 인해 딸기에서의 서식이 불가능해진 결과 기주치환이 일어나고 있는 종으로 사료된다. 본 연구는 이 종의 생태를 세 가지 기주식물 즉, 돌소리쟁이 (*Rumex obtusifolius*), 소리쟁이 (*Rumex crispus*), 고마리(*Persicaria hunbergii*)를 이용하여 비교 조사해 보았다.

생활사는 돌소리쟁이, 소리쟁이, 고마리를 먹이로 준 경우 각각 19.81 ± 1.55 일, 19.80 ± 1.66 일, 18.05 ± 0.93 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. 생존율은 돌소리쟁이, 소리쟁이, 고마리를 먹이로 준 경우 각각 76.19%, 84.62%, 71.7%로 다른 먹이에 비해 소리쟁이를 먹이로 주었을 때 약 8~13% 정도 높게 나타났다. 성충의 두폭과 체장은 돌소리쟁이를 먹이로 주었을 때 0.73 ± 0.05 mm, 3.56 ± 0.28 mm이며 소리쟁이를 먹이로 주었을 때 0.75 ± 0.05 mm, 3.57 ± 0.32 mm, 고마리를 먹이로 주었을 때 0.73 ± 0.06 mm, 3.65 ± 0.26 mm로 먹이에 따른 크기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따라서 딸기잎벌레는 기주식물에 따른 생활사의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는 generalist herbivore로 사료된다.